

# 2014년 1/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박희석**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 2014년 1/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요약	3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II.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III.	요약 및 시사점	21
	부록 : 2014년 1/4분기 주요 조사결과	23

박희석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02-2149-1227  
hspark@si.re.kr

###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과 고용은 전반적으로 위축세

서울의 산업생산은 2013년 7월 -13.3%를 저점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여 10월에는 플러스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자본재 등 모든 재별 생산의 하락으로 최근 5개월간 평균 -4.4%를 유지하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한편,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3년 하반기 이후 12월 0.7%로 저점을 기록한 뒤 대형마트 위주로 판매액지수가 증가하여 최근 5개월간 평균 4.1%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3년 12월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4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1.9%로 다소 둔화된 5,107명을 기록하였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수의 증가율은 최근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가 감소한 881명을 기록하고 있어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이 단기적인 효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014년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어 다시 주춤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4년 1/4분기에 전(前) 분기 대비 3.9p 하락한 87.8로 2분기 만에 2013년 3/4분기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현재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 대비 4.8p 하락한 84.6을 기록하며 1년 연속 평균 86.7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어, 생활형편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9.0을 기록하였고,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에서 '교육비'는 122.4를 기록하고 있어 체감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세 지속과 새 학기를 맞이한 소비심리 등의 영향을 받아 기준치(100)를 상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1/4분기 「물가전망지수」는 전 분기 대비 5.6p 상승한 143.8로 소비자들은 향후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6p 하락한 88.6으로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어 고용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서민경제의 안정화, 서울의 잠재성장력 향상을 위한 활성화대책이 필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하여 추가적인 가계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취약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 적정임금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영세사업자 보호정책 등을 꾸준히 지속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 등을 확대하여 유망 중소기업이 적절한 경영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통해 잠재성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과 고용은 전반적으로 위축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1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

- 최근 자본재, 중간재 생산의 급감과 소비재 생산의 감소로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세
- 「산업생산지수」는 2013년 7월 -13.3%로 저점을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상승하여 10월 2.7%의 플러스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이후 하락세로 이어져 최근 5개월간 평균 -4.4%를 유지
- 자본재 등 모든 재별 생산의 하락으로 2014년 1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1.4% 기록
- 부문별로 자본재와 중간재, 소비재 생산은 2014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6.3%, -19.5%, -3.2%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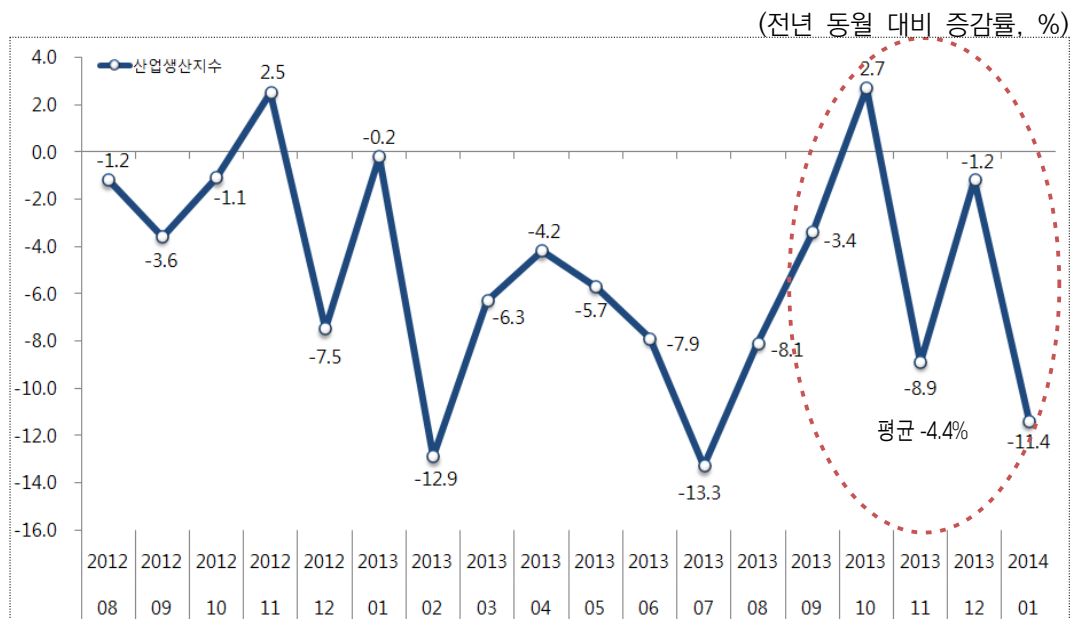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산업생산

자료 : 통계청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최근 5개월간 평균 4.1% 증가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4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
- 부문별로 보면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18.8%를 기록하여 대형마트 위주로 판매액지수가 증가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가율은 2013년 하반기 이후 12월 0.7%로 저점을 기록했으나 1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5개월간 평균 4.1% 증가
- 서울의 2014년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설 명절 지출 증가 등의 효과로 10.7% 증가하여 2012년 11월 8.4% 증가 이후 최고의 증가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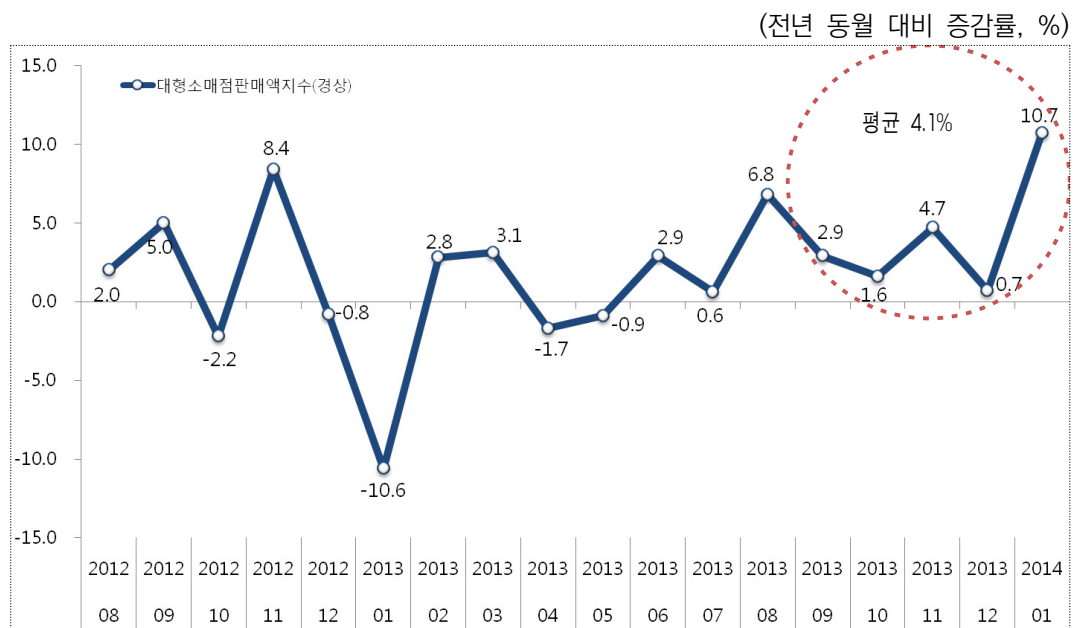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자료 : 통계청

##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나 증가율은 소폭 하락

- 2014년 1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한 5,107명

-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3년 12월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한 후 2014년 1월 들어 증가폭이 다소 둔화
- 2014년 1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가 감소한 881명
- 2013년 9월 전년 동월 대비 2.7% 성장을 보인 이후부터 최근까지 증가율이 감소하여 최근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2012년 11월 이후 감소폭이 꾸준히 줄어들어 청년취업의 활성화정책이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2개월간 하락세로 반전됨에 따라 단기적인 정책효과 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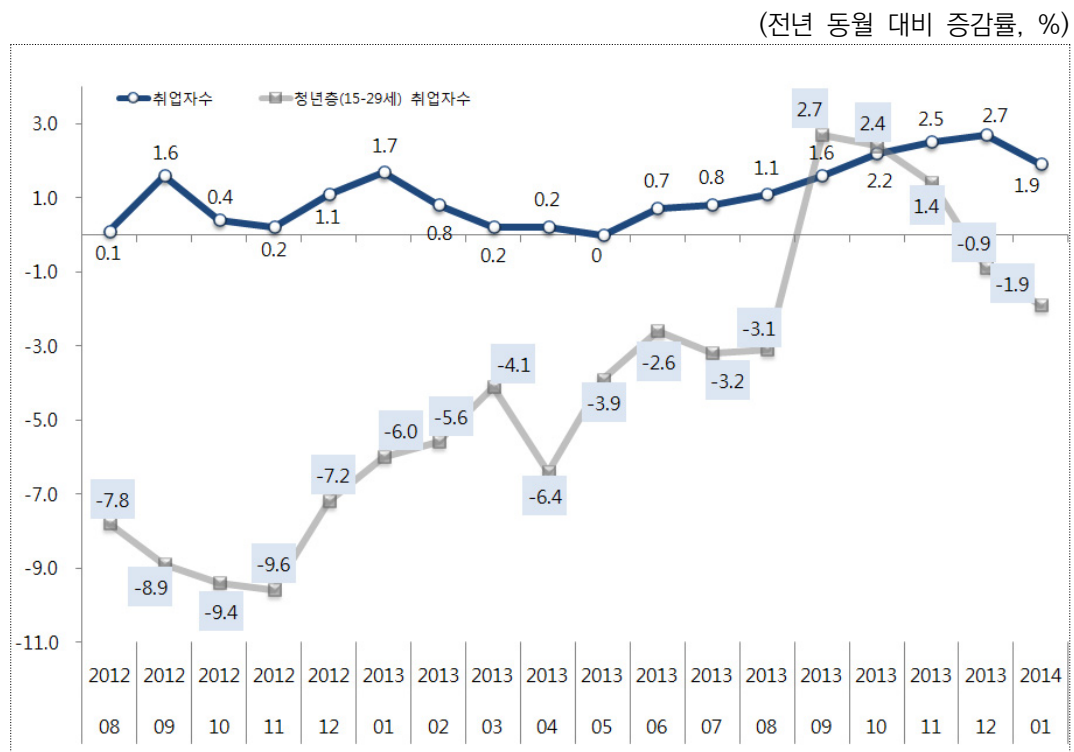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자료 : 통계청

## II.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 시민의 체감경기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약화로 다시 주춤

#### 서울의 1/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소폭 하락

- 2014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87.8로 전(前) 분기보다 3.9p 하락
- 2013년 1/4분기부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지난 분기 90을 넘어섰으나 2분기 만에 2013년 3/4분기 수준으로 복귀
- 물가 안정세 지속, 대외 경기 회복세 등으로 서울시민의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번복, 가계부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소비심리는 다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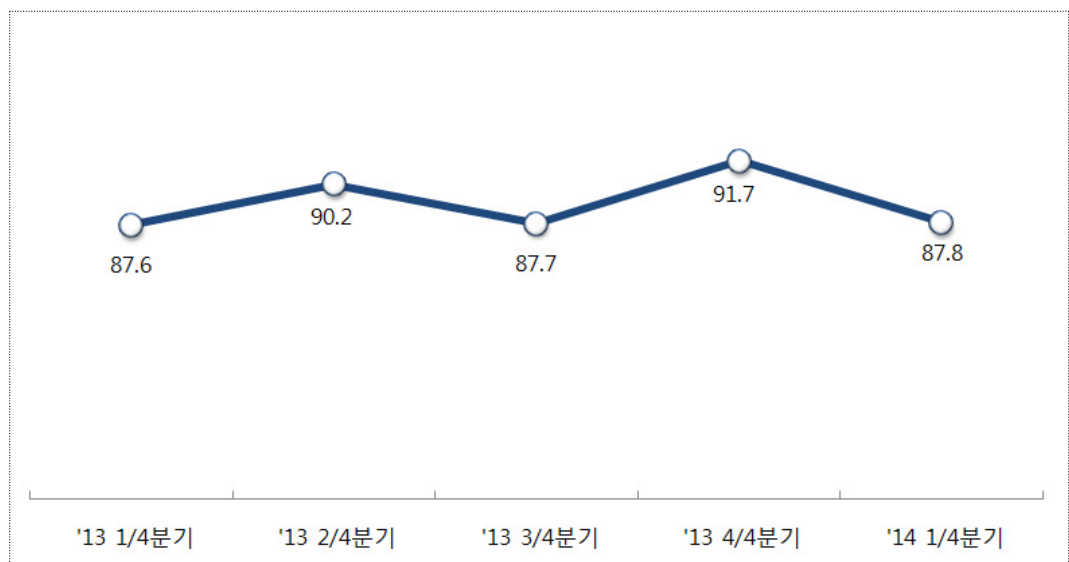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 서울의 현재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도 하락

- 2014년 1/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4.8p 하락한 84.6, 「미래생활형편지수」는 2.1p 하락한 99.7을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1년 연속 평균 86.7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체감하



고 있는 생활형편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미래생활형편지수」는 1년 연속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다가 2014년 1/4분기에 기준치(100) 이하로 하락하여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도 다소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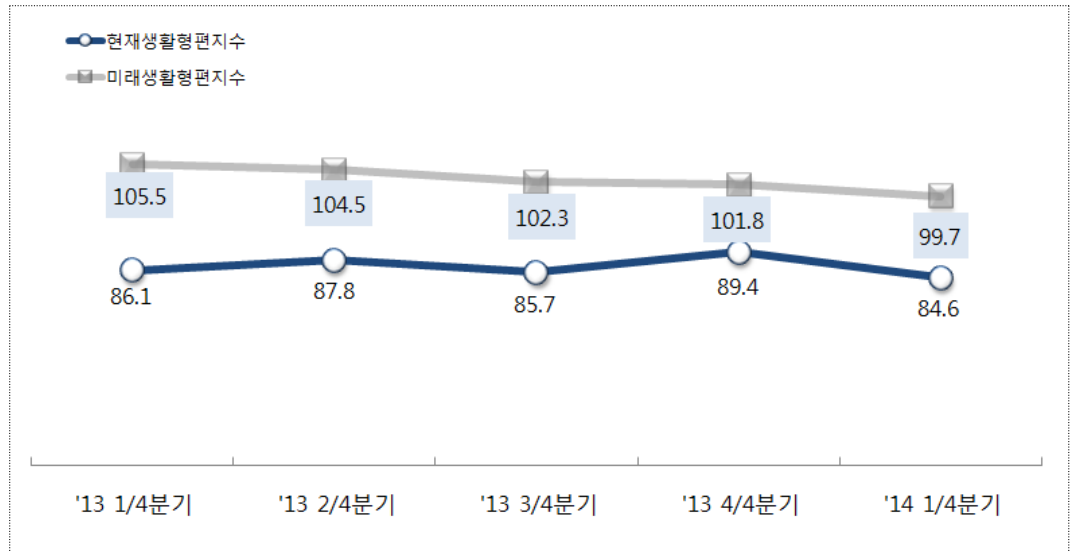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의 현재 생활형편이 가장 긍정적

- 서울 전체의 「현재생활형편지수」 84.6보다 높은 지역은 동북권(87.4), 서남권(86.0) 순으로 생활형편을 평균보다 긍정적으로 판단
- 4개 권역의 지수 값은 80 중반대를 기록한 반면, 도심권은 66.1로 전체 5개 권역 중 현재 생활형편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 소득이 높아질수록 현재 생활형편을 긍정적으로 인식

- 소득수준별로 보면 6,001만원 이상의 소득층이 95.3으로 현재 생활형편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
- 반면, 5,000만원 이하의 소득층에서는 서울 전체의 「현재생활형편지수」 84.6보다



낮아 평균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생활형편을 부정적으로 인식

- 특히 2,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이 63.7로 최저값을 기록하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유지형 대책의 강화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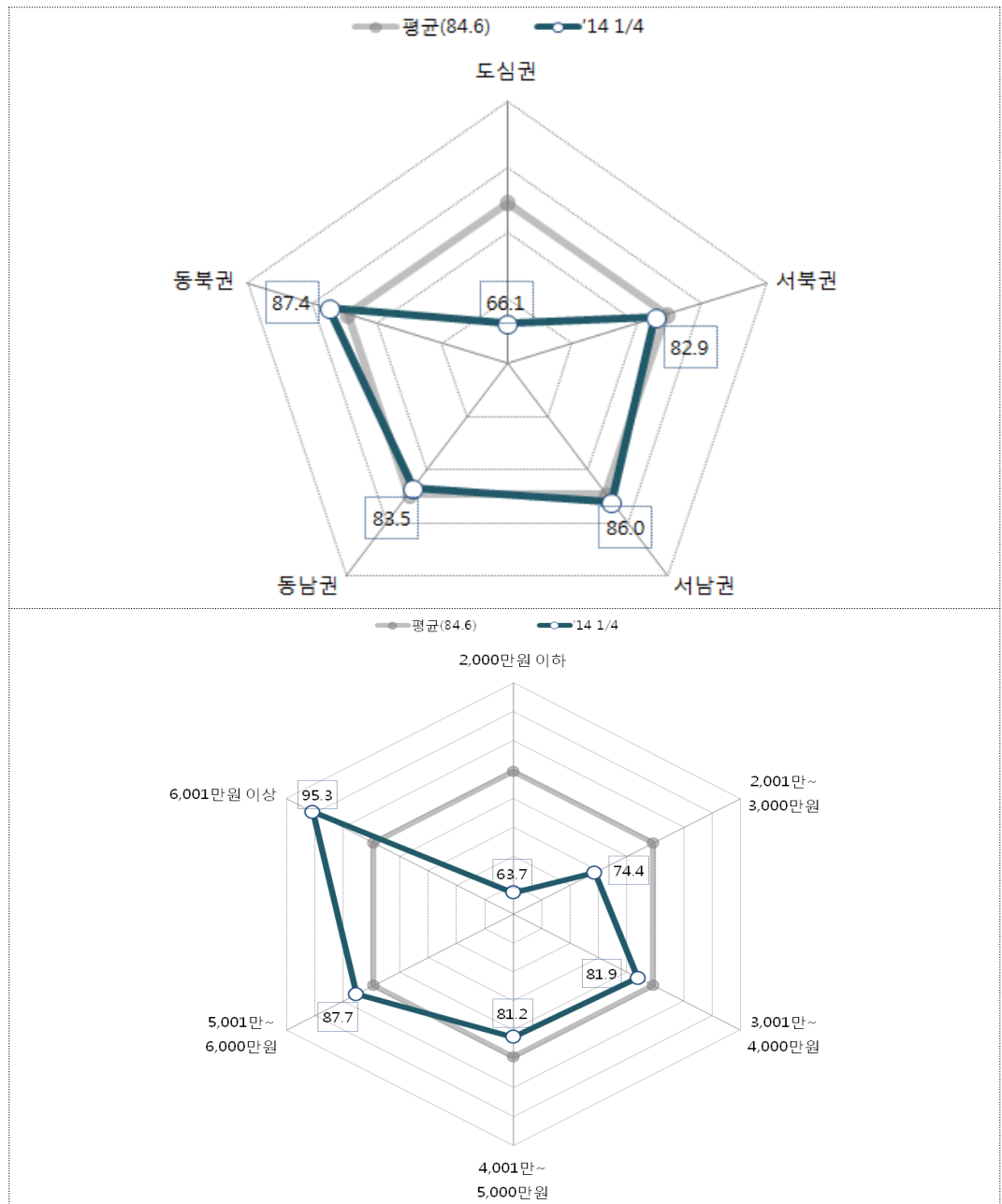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소득수준별 생활형편지수

## 서울의 현재와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하락

- 2014년 1/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7.7p 하락한 63.8을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지난해 4/4분기 71.5로 전 분기 대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 다시 2013년 2, 3분기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어 현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 2014년 1/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95.0으로 전 분기 대비 1.8p 하락
  -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013년 1/4분기(100.4)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 3분기 평균 95.3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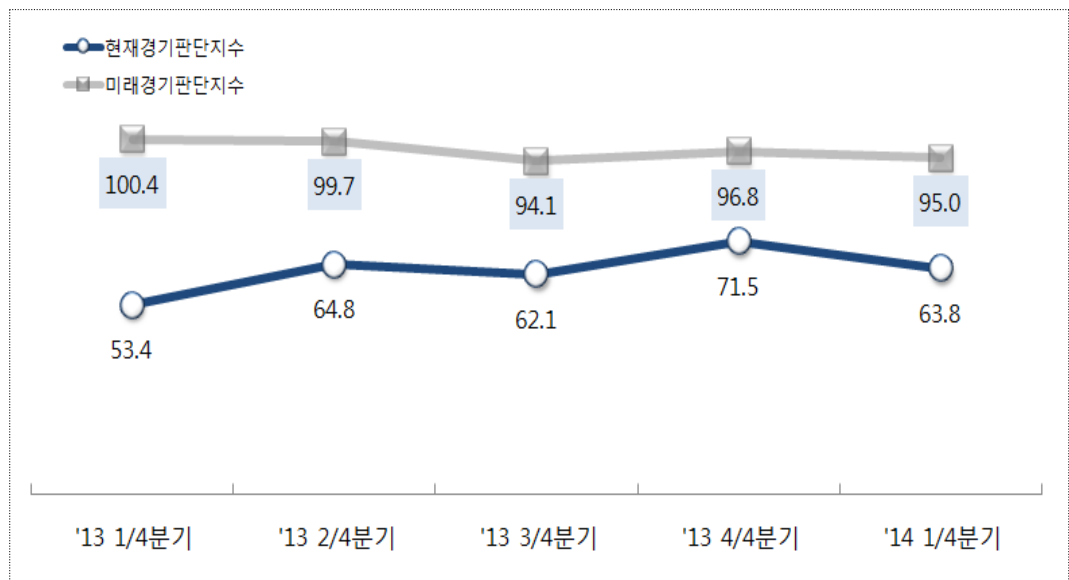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 권역별로 보면 서남권에서 현재 경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

- 5개 권역 중 서남권(67.2)만이 전체 「현재경기판단지수」보다 높은 값을 기록하여 1년 전 대비 현재 경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 반면 도심권(59.9)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경기를 부정적으로 인식

### 6,001만원 이상의 소득층에서 현재 경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

- 소득수준별로 보면, 6,001만원 이상(65.2)의 소득계층과 5,001만~6,000만원(64.4)의 소득계층에서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현재 경기를 긍정적으로 평가
- 반면 2,001만~3,000만원(59.7) 계층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소득수준에서는 최고값과 최저값의 격차가 5.5p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가 기준치(100) 이하로 1년 전 대비 현재 체감경기는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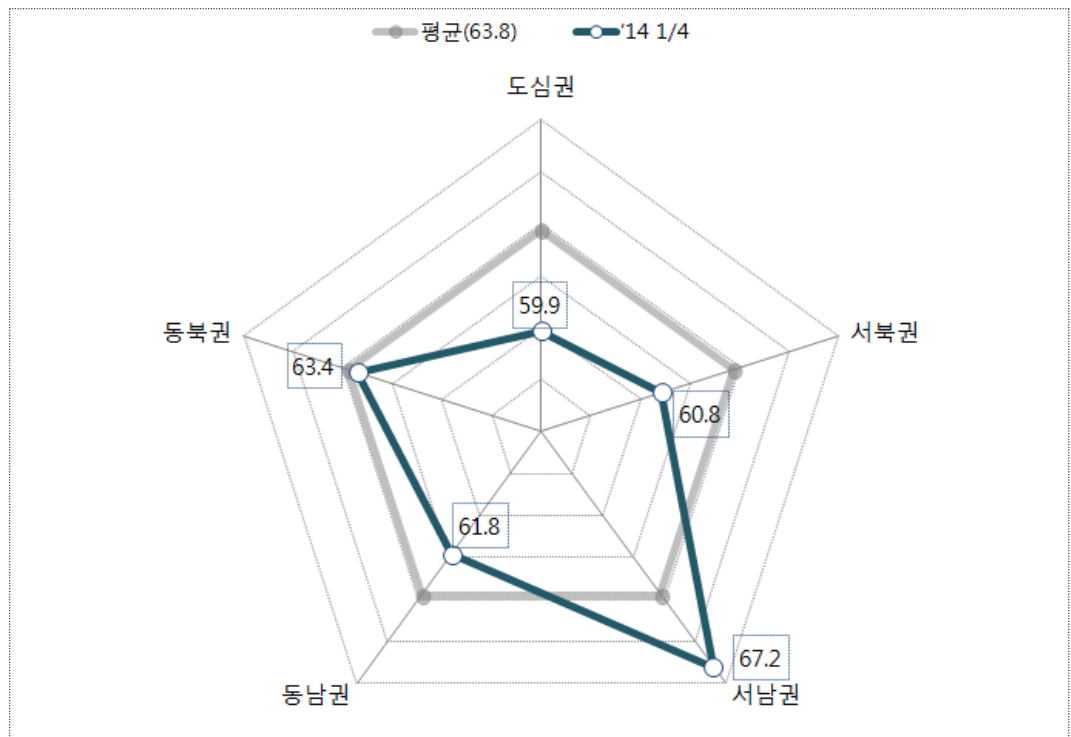


그림 8. 서울의 권역별 경기판단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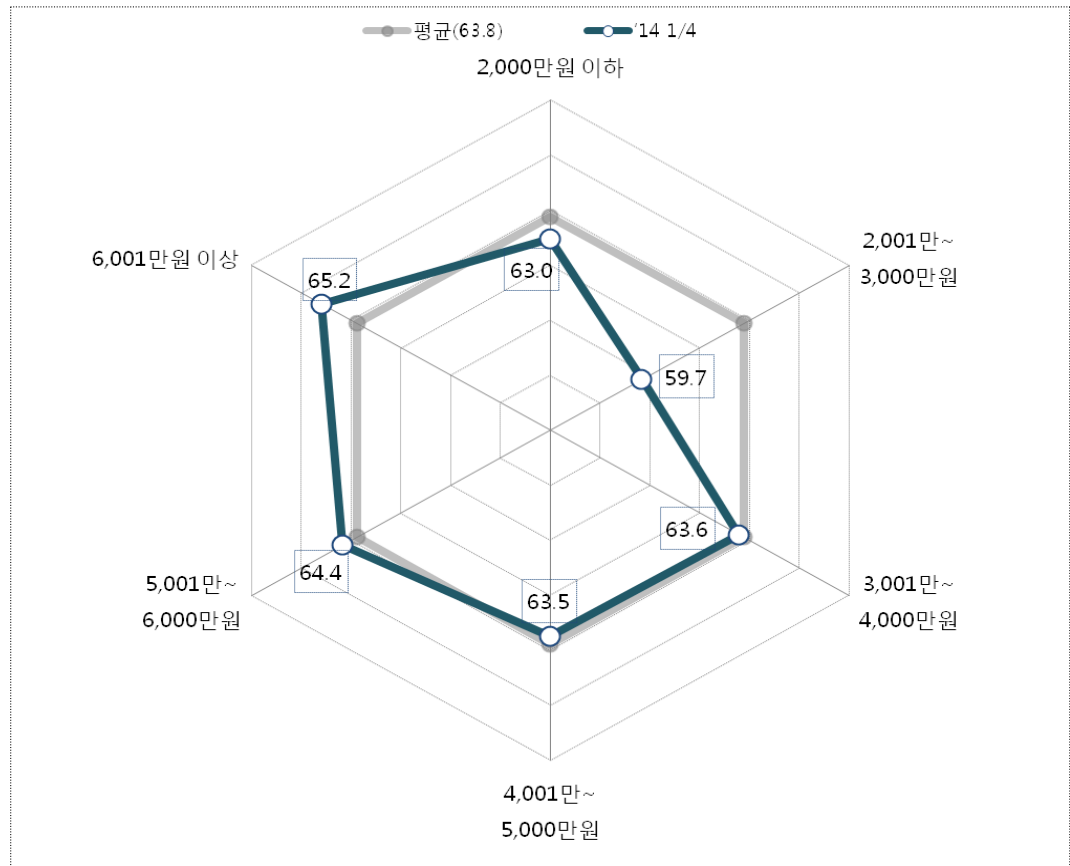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소득수준별 경기판단지수

### 서울의 현재 및 미래 소비지출은 모두 증가

- 2014년 1/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9.0으로 기준치(100)를 상회
  - 체감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학기 학자금 등의 시기적인 영향으로 현재 소비지출은 큰 폭으로 상승
- 2014년 1/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4.8p 상승한 104.2를 기록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공과금 인상 등이 예상됨에 따라 3분기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 1/4분기 지수는 기준치(100)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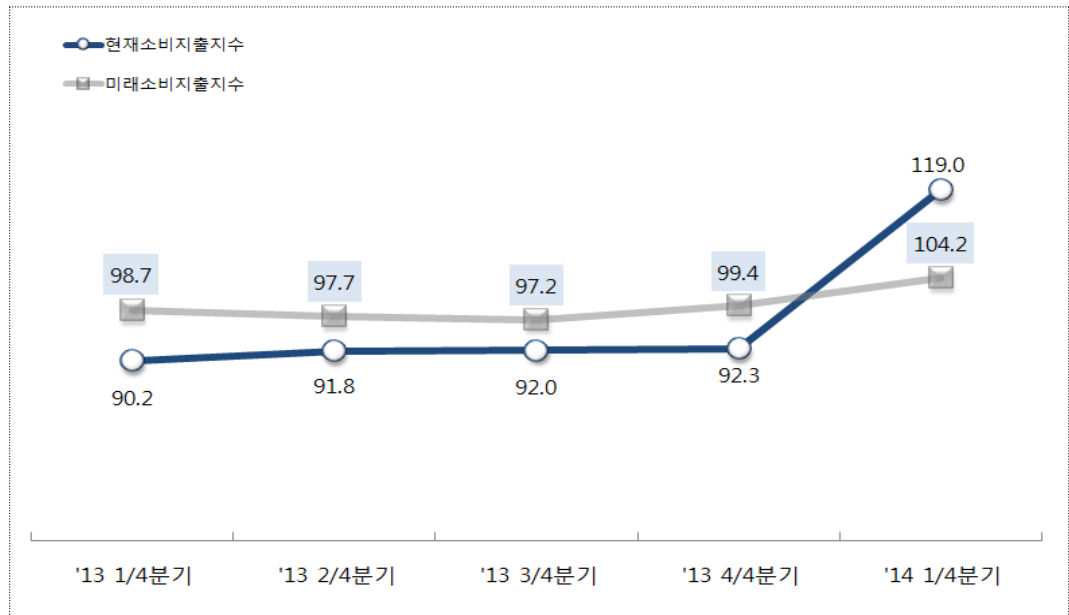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2014년 조사부터 해당 질문의 문맥이 바뀌어 기존 지수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품목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지출이 증가할 전망

- 전 분기에 비해 ‘교육비’는 11.9p 증가한 122.4, ‘주거비’는 4.0p 상승한 107.4, ‘교통/통신비’는 1.4p 상승한 104.6, ‘식료품비’는 4.0p 상승한 101.9를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상회
- ‘교육비’를 중심으로 향후 소비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새 학기 시작에 따른 계절적인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교육비’에 이어 ‘주거비’가 향후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가계 지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문화오락비’ 항목은 전 분기 대비 2.6p 상승한 96.9, ‘의류비’는 전 분기 대비 4.3p 상승한 91.7을 기록
- ‘문화오락비’와 ‘의류비’에 대해서 전 분기보다 향후 소비지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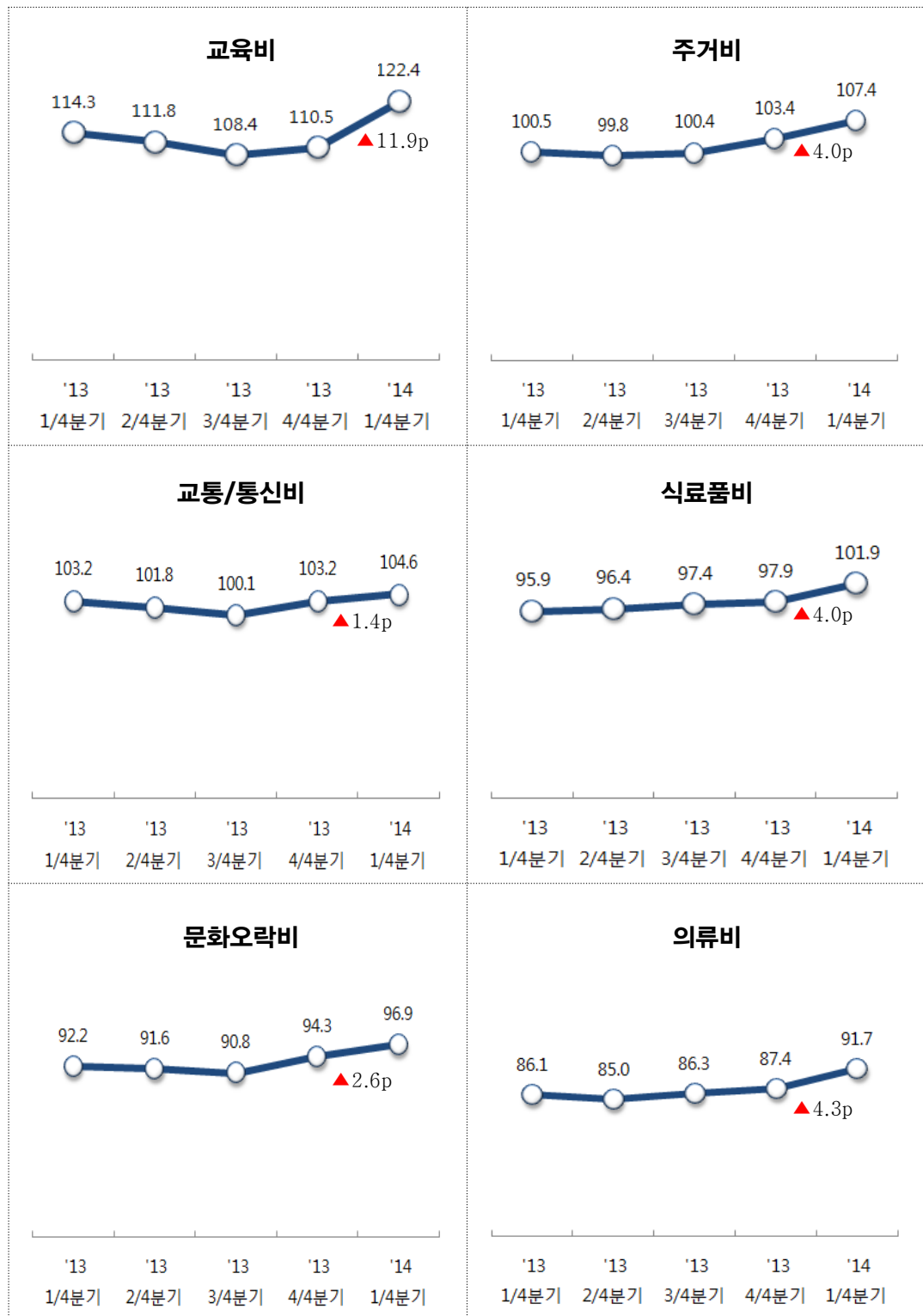


그림 11.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 서울시민의 내구재구입태도는 주춤, 주택구입의사는 긍정적

- 2014년 1/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3.4p 하락한 95.7을 기록
  - 2013년 1/4분기(92.5) 이후 1년 연속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4/4분기(99.1)에 기준치(100)에 근접하였으나 다시 소폭 하락하여 내구재에 대한 소비심리는 유보적
- 「주택구입태도지수」는 101.5를 기록하여 전 분기 대비 3.4p 하락
  - 2013년 4/4분기에 104.9로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구입태도지수」는 기대심리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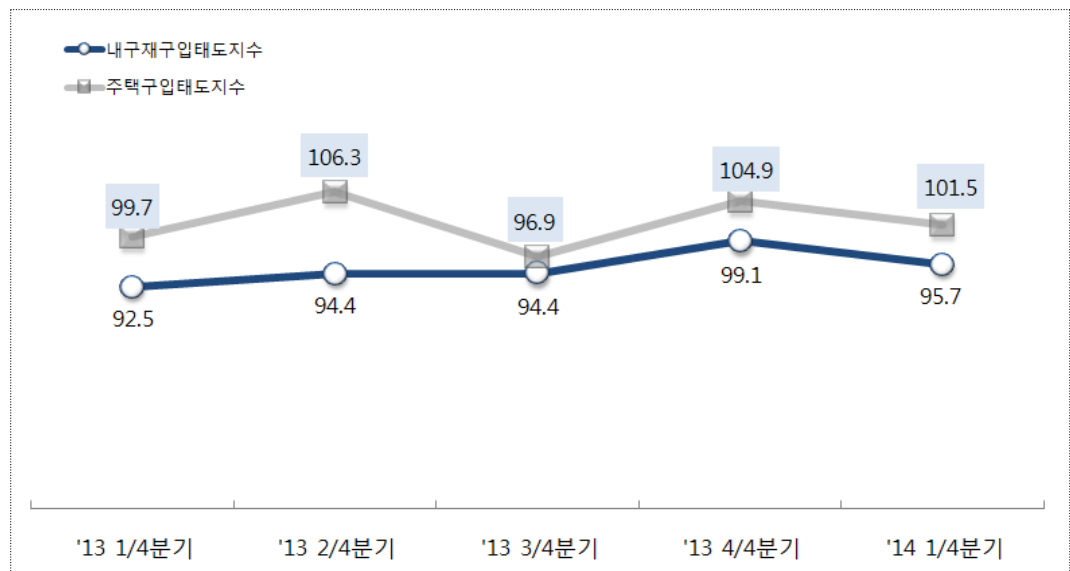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 권역별로는 서북권의 내구재구입에 대한 기대가 가장 긍정적

- 서북권(96.5)과 서남권(95.8)의 내구재구입태도는 전체 지수 값보다 상회하고 있어 타 권역에 비해 현재가 내구재구입시기로 적절한 것으로 인식
- 반면 도심권(93.8)에서의 내구재구입에 대한 기대치는 전체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 2,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내구재구입태도가 가장 긍정적

- 2,000만원 이하(99.1)의 소득계층과 5,001만~6,000만원(97.9), 3,001만~4,000만원(97.8)의 소득계층에서의 내구재구입태도가 전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
- 반면 4,001만~5,000만원(94.5), 2,001만~3,000만원(87.0)의 소득계층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내구재구입시기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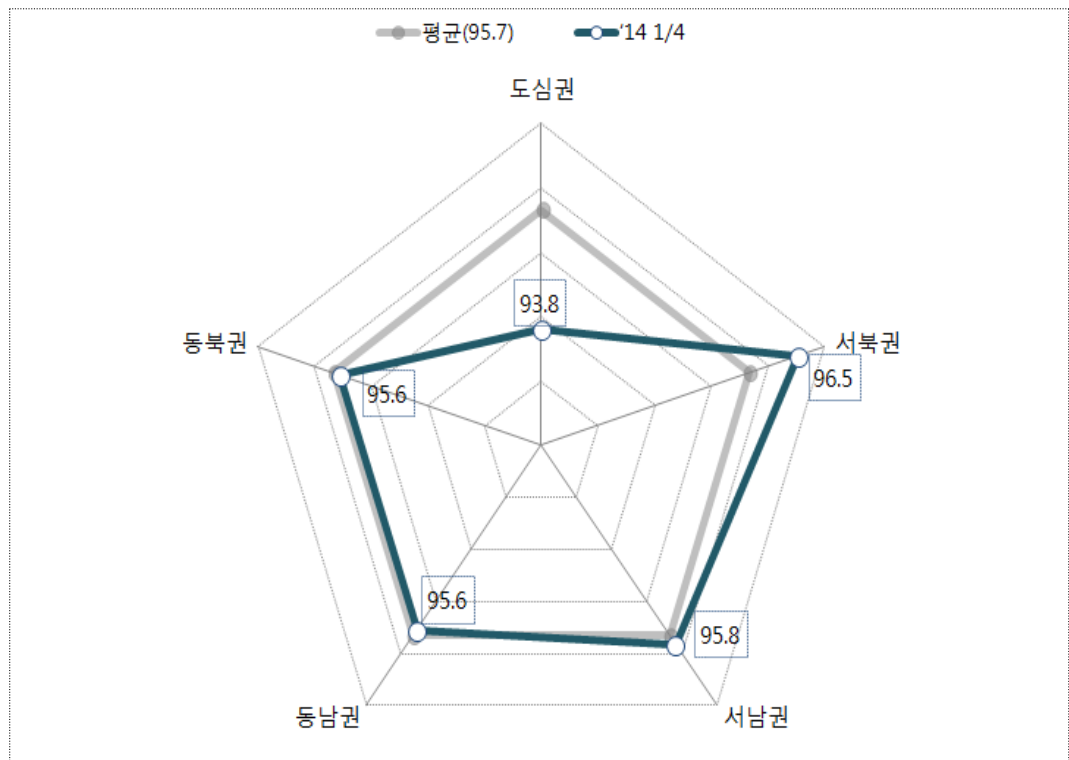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의 권역별 내구재구입태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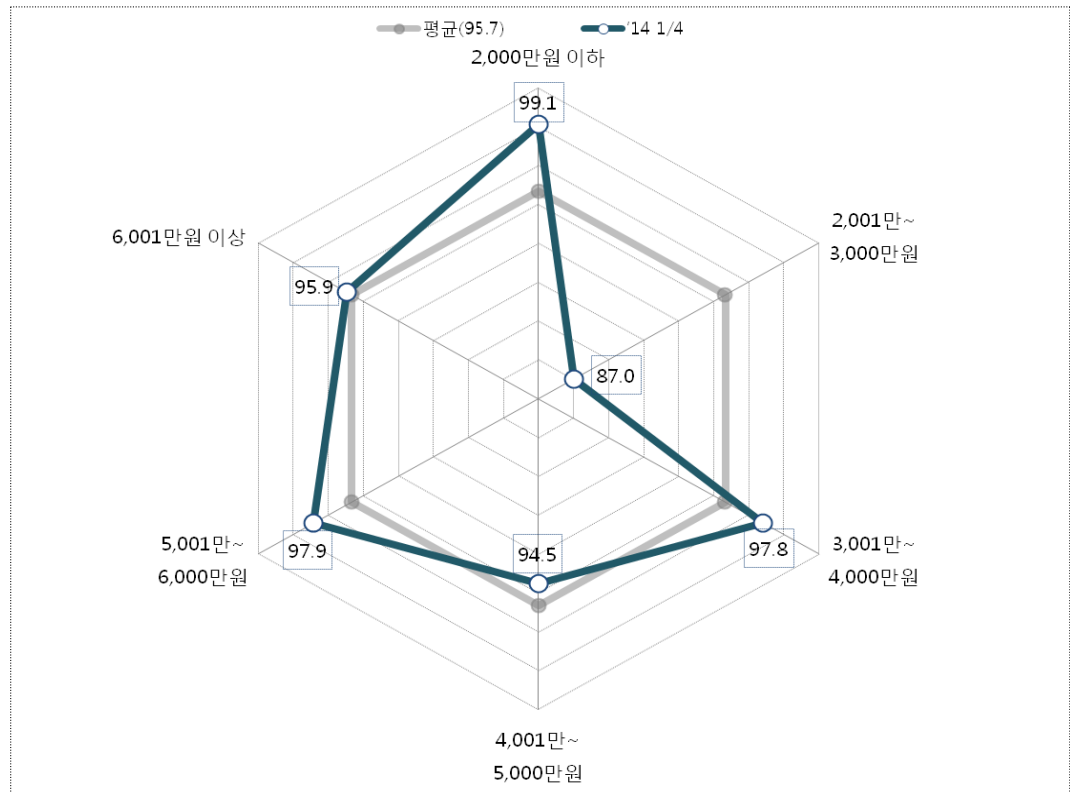


그림 14. 서울의 소득수준별 내구재구입태도지수

권역별로는 도심권에서 주택구입시기에 대한 기대가 가장 긍정적

- 도심권에서 「주택구입태도지수」는 117.8로 전체 값보다 16.3p 상회하고 있어 주택 구입시기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
- 반면, 서북권은 89.6으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주택구입시기를 부정적으로 인식

2,000만원 이하 소득층에서 현재 주택구입시기로 가장 긍정적 인식

- 소득수준별로 보면, 2,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106.7)에서의 주택구입시기에 대한 태도가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가장 긍정적
- 반면, 5,001만~6,000만원의 소득계층(92.7)에서 현재 주택구입시기를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답하여 최고값과 14.0p 격차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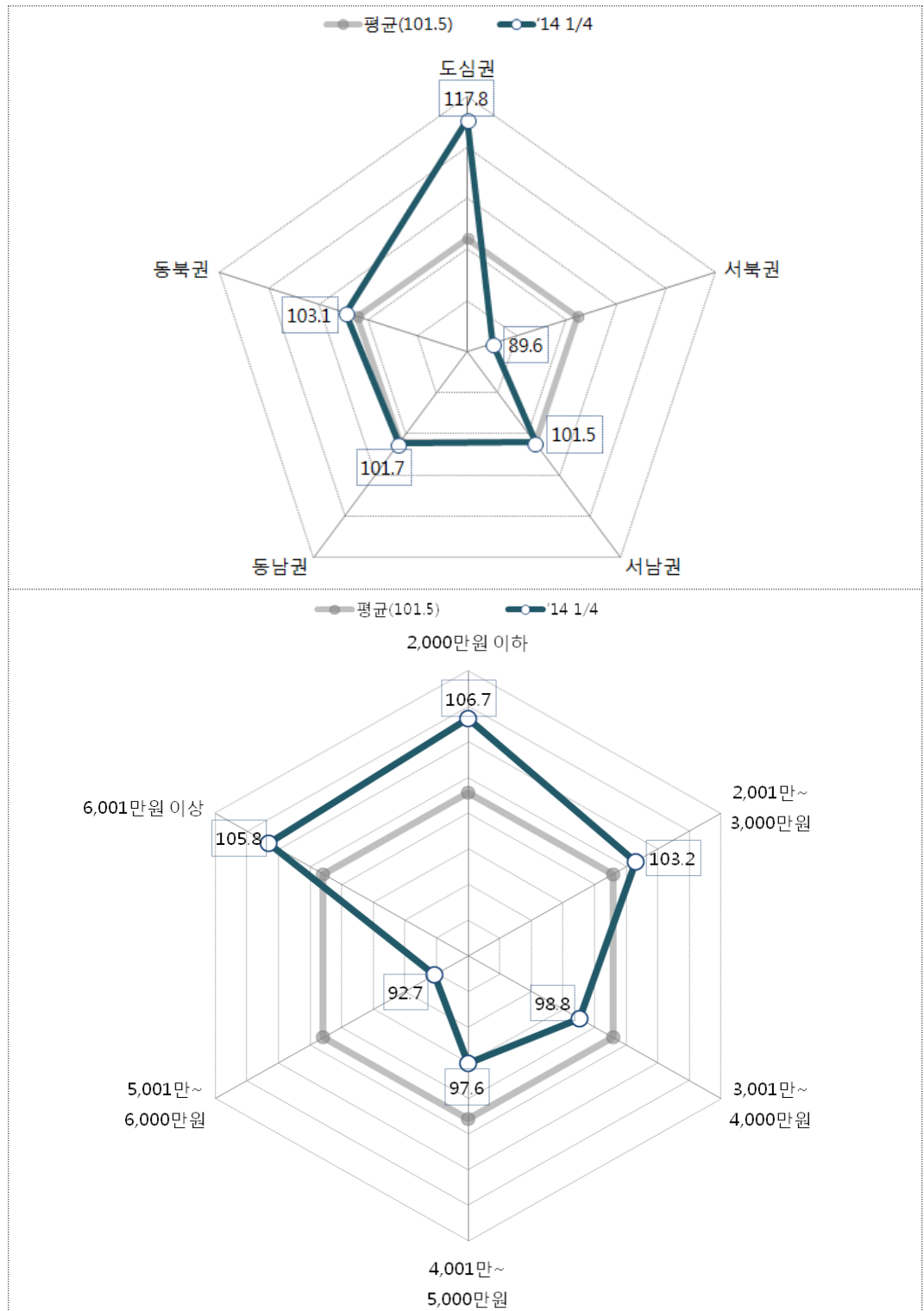


그림 15. 서울의 권역별, 소득수준별 주택구입태도지수

## 체감물가는 상승 전망, 고용상황과 순자산은 소폭 하향세

- 2014년 1/4분기 「순자산지수」는 전 분기 대비 0.9p 하락한 96.4로 지난해 1/4분기 수준으로 복귀하여 5분기 평균 96.0을 유지
- 2014년 1/4분기 「물가전망지수」는 전 분기보다 5.6p 상승한 143.8로 향후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
- 2013년 동안 체감물가 오름세가 완화되었으나 2014년 들어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은 2013년 3/4분기 수준으로 복귀
- 2014년 1/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88.6으로 전 분기 대비 2.6p 감소
- 최근 5분기 연속 「고용상황전망지수」가 감소하고 있어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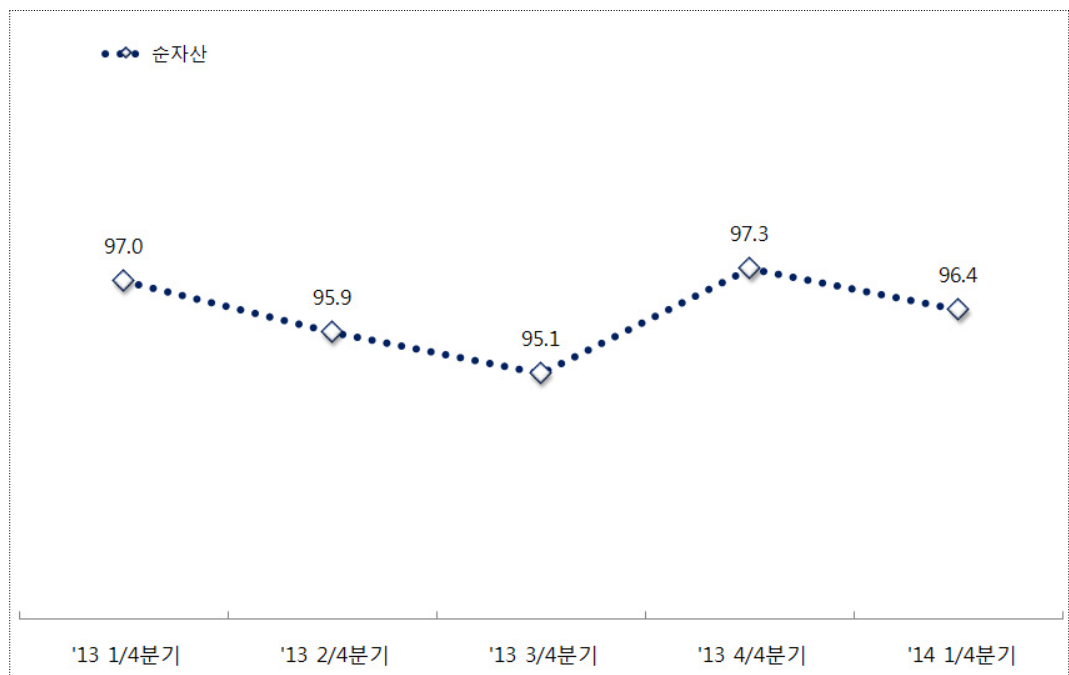


그림 16. 서울의 순자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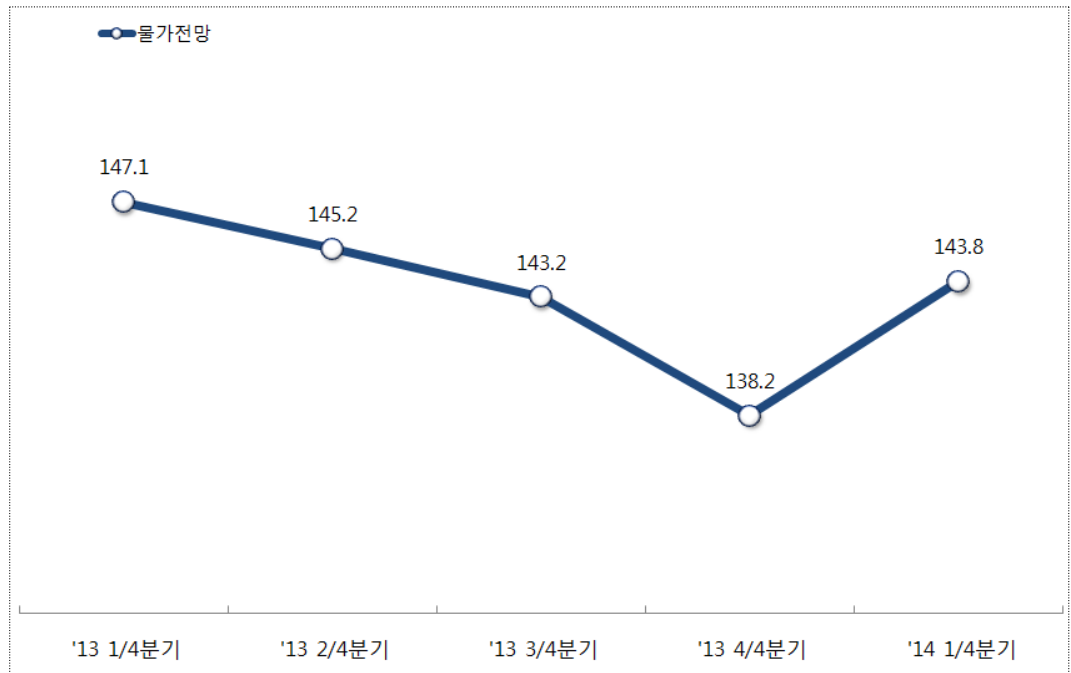


그림 17. 서울의 물가예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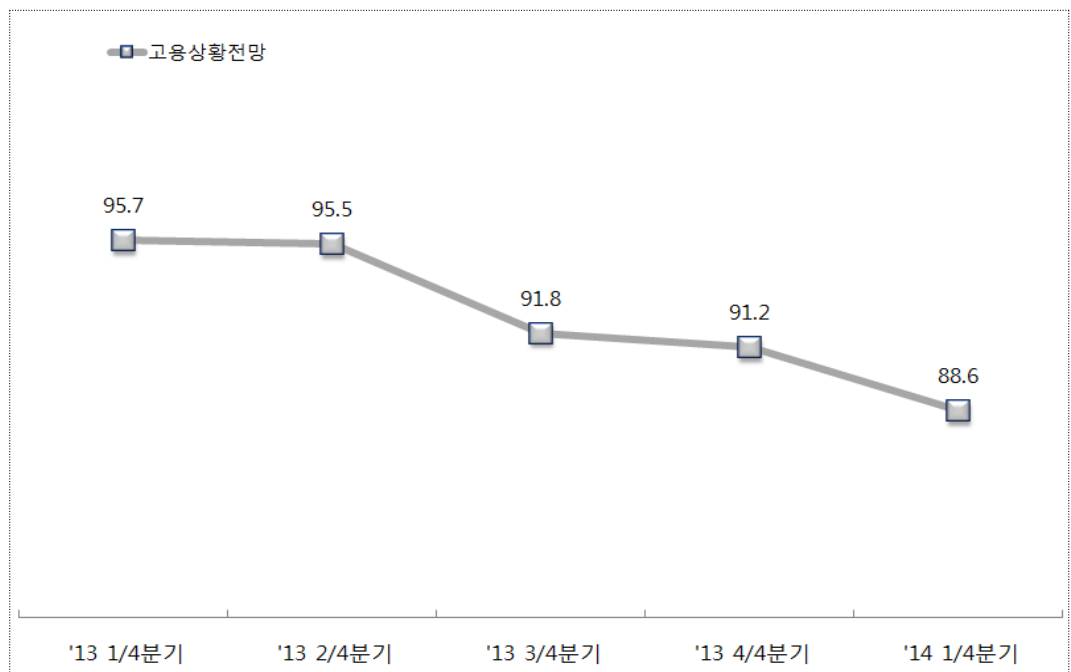


그림 18. 서울의 고용전망지수

### Ⅲ. 요약 및 시사점

---

## 2014년 1/4분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는 다시 주춤

### 서울의 산업생산과 고용은 전반적으로 위축

- 산업생산과 청년층 취업자 수의 하락폭이 증가하고, 소비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증가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2014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율을 기록하며 최근 5개월간 평균 -4.4%를 유지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4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대형마트는 18.8%, 백화점은 4.1% 성장을 보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최근 5개월간 평균 4.1% 기록
-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소폭 둔화된 증가세로 2014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한 5,107명이나,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1.9% 감소한 881명

### 서울의 체감경기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약화로 주춤

-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4년 1/4분기에 87.8로 전 분기 대비 3.9p 감소
- 2014년 1/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84.6,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3.8로 현재의 생활형편 및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 체감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학기 학자금 등의 원인으로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9.0을 기록하였고,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에서는 ‘교육비’가 전 분기 대비 11.9p 큰 폭으로 상승하여 122.4를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상회
- 물가 안정세의 지속으로 소비지출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약화로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다시 하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

---

## 서민경제의 안정화, 서울의 잠재성장 유도를 위한 활성화대책이 필요

### 서민금융 지원, 영세사업자 보호 정책 등으로 서민경제를 안정화

- 서민들의 소득여건 개선과 서민금융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가계부채의 부담을 감소
  - 정부의 금리인하 및 주택보조 정책 등으로 서울의 가계부채 액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심리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
  -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하여 가계 부담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방안을 마련
-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고용과 영세사업자의 영업활동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비정규직, 저임금 취약근로자 등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적정임금의 보장과 ‘서울특별시 근로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등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이 필요
  - 자본과 정보가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의 권리금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될 ‘상가 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통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

### 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의 잠재성장력을 향상

- 서울의 경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등의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
  -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서울의 강점과 특성을 살려 외국인 투자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채용박람회 등의 지속적인 실시로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의 가시적인 정책 노력과 홍보 방안이 필요
  - 우수한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유망 중소기업이 해외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서울의 잠재성장력을 강화



## 부록 : 2014년 1/4분기 주요 조사결과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3년 1/4분기	87.6	86.1	105.5	53.4	100.4	92.5	99.7
2013년 2/4분기	90.2	87.8	104.5	64.8	99.7	94.4	106.3
2013년 3/4분기	87.7	85.7	102.3	62.1	94.1	94.4	96.9
2013년 4/4분기	91.7	89.4	101.8	71.5	96.8	99.1	104.9
2014년 1/4분기	87.8	84.6	99.7	63.8	95.0	95.7	101.5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3년 1/4분기	90.2	98.7	97.0	95.7	147.1
2013년 2/4분기	91.8	97.7	95.9	95.5	145.2
2013년 3/4분기	92.0	97.2	95.1	91.8	143.2
2013년 4/4분기	92.3	99.4	97.3	91.2	138.2
2014년 1/4분기	119.0	104.2	96.4	88.6	143.8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를 대상으로 매분기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pm 3.1\%$ 임(2014년 1/4분기 조사 시점은 2014년 2월 하순).